

# '황금세대' 한국 수영,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 노린다



내일 도하서 개막... 197개국 2500명 선수 출전  
황선우·김우민·다이빙 김수지 등 메달 획득 도전  
파리올림픽 앞두고 스타 플레이어 등 대거 불참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회한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2024년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한다.

제21회 세계수영선수권이 2일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올린다. 중동에서 세계수영선수권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난민 선수단을 포함한 197개국 2500명 이상의 선수가 6개 종목에서 75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현지시간 2일부터 10일까지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다이빙 경기(금메달 13개)를 치르고, 같은 기간 어스파이어돔에서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금메달 11개)가 펼쳐진다.

오픈워터 스위밍은 올드 도하 포트에서 3일부터 8일까지, 5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린다. 하이 다이빙(금메달 2개)은 13~15일 올드 도하 포트 특설 무대에서 '아찔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구는 4일부터 17일까지 어스파이어돔에서 남녀 챔피언을 가리는 열전을 벌인다.

가장 주목받는 경영(금메달 42개)은 어스파이어돔에서 대회 후반부터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국제수영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선수권 일정이 꼬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세계선수권을 치르는 '무리한 편성'을 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파

리 올림픽 개막(7월 26일)을 5개월 남기고 개막하는 도하 세계선수권에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불참한다. 수영전문매체 스위스웹은 "불참 선수 명단이 더 화려하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여자 자유형 800m에서 세계수영선수권 단일 종목 최다인 6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회 역대 최다 타이인 21개의 금메달을 보유한 '리빙 레전드' 케이티 러데키(미국)는 일찌감치 "파리 올림픽에 전념하겠다"며 도하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후쿠오카 대회 5관왕 물리 오컬러현(호주), 4관왕 천하이양(중국), 3관왕 케일리 매론, 카일 차머스(이상 호주), 2관왕 서머 매킨토시(캐나다) 등 전대회 다관왕은 물론이고 아리안 티트머스(호주), 케일럽 드레슬(미국),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 장위페이(중국) 등 세계적인 스타들도 도하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은 여전히 많은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다. 르네상스를 맞은 한국 수영에는 역대 세계선수권 최고 성과를 낼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수영은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땀다.

경영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자유형 400m 1위, 200m 3위에 올랐고, 2011년 상하이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9년 광주에서는 다이빙 김수지(울산시청)가



황선우가 지난해 7월 일본 후쿠오카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세계수영선수권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여자 스프링보드 1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황선우(강원도청)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022년 부다페스트 2위, 2023년 후쿠오카 대회 3위에 올랐다.

아직 단일 대회에서 '복수'의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오를 적은 없다.

이번 도하에서는 황선우가 자유형 200m에서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고, 김우민(강원도청)도 자유형 400m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주요 국가들이 경영에서 힘을 빼면서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대구시청), 이유연(고양시청)으로 팀을 꾸릴 '아시아 최강' 남자 경영 800m 대표팀이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체전 메달 획득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졌다.

경영과 달리 다이빙과 하이다이빙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도하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후쿠오카에서 13개 중 12개의 금메달을 휩쓴 중국 다이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도 천위시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을 앞세워 금메달 독식을 노린다. 20m의 아찔한 높이에서 낙하하는 하이 다이빙 여자부에서는 리애넌 이플런드(호주)가 4연패를 노린다.

27m에서 뛰어내리는 남자부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콘스탄틴 포포비치(루마니아)와 2015년과 2019년 광주 대회서 두 차례 우승한 개리 헌트(프랑스)의 라이벌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영암민속씨름단 "설날 장사 꽃가마 준비"



지난 30일 영암민속씨름단이 영암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다.

<영암민속씨름단 제공>

### 7일~12일 태안서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설날씨름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워터스퀘어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태안태안에서 열린다.

3개 종별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남자체급별장사전(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 198명, 여자체급별장사전(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 44명, 여자부단체전 41명 등 총 28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체급 분류 기준은 남자부 태백급이 80kg 이하, 금강급이 90kg 이하, 한라급이 105kg 이하, 백두급이 140kg 이하이다. 여자부는 매화급이 60kg 이하, 국화급이 70kg 이하, 무궁화급이 80kg 이하이다.

대회 첫 날인 7일엔 여자부 체급별 개인 예선전 및 단체전 예선이 진행된다. 대회 2일 차인 8일에는 태백급 예선과 여자부 체급별 개인전 및 단체전

결정전이 열린다.

본격적인 승부가 전개되는 9일에는 개회식 및 태백장사 결정전, 금강장사 결정전이 펼쳐지고, 11일에 한라장사 결정전, 12일에 백두장사 결정전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부터 준결승 경기는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고, 장사결정전은 남자부 5전 3선승제, 여자부 3전 2선승제다. '최강팀' 영암민속씨름단은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올해 첫 장사등급을 위해 나선다.

영암민속씨름단은 31일 오전 영암군청에서 선수 입단 및 출정식을 열고 새로 입단한 소백급 안성민·이동혁, 태백급 이은수, 금강급 조운호·유한 등 5명을 공개했다.

김기태 감독과 윤정수 코치가 이끄는 영암민속씨

름단은 지난해 영암에서 열린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급 최정만, 한라급 차민수, 백두급 김민재까지 3체급을 석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총 19번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의 핵심이자 첫 대회인 설날대회를 앞두고 영암민속씨름단은 전 선수의 컨디션을 최고 상태로 끌어 올리는 중이다.

김기태 감독은 "현재 동계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부터 본격적인 몸 관리에 돌입하고, 2일에는 대회를 위한 시뮬레이션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바탕으로 올해도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날장사씨름대회의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장사 인증서, 장사 순회배, 장사 트로피, 경기력향상지원금과 꽃목걸이가 주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신진서 LG배 제패...세계기전 통산 6번째 우승

### 한국, 13회 최다 우승국

신진서 9단이 통산 여섯번째 세계기전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지난 31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8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변상일 9단에게 22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종합 전적 2-0으로 승리한 신진서는 LG배에서 24회와 26회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역대 LG배에서는 4차례(1·3·5·8회) 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9단에 이어 최다승 2위에 올랐다.

또 신진서는 메이저 세계기전에서 6번째 우승을 획득, 역대 순위에서 이창호(17회), 이세돌(14회), 조훈현(9회), 구리·커제(이상 8회)에 이어 유창혁과 공동 6위가 됐다.

이날 대국은 신진서와 변상일이 초반부터 치열한 전투 바둑을 전개했다.

대국 초반 우하구에서 시작된 전투가 상변과 우상귀로 이어지며 밀고 밀리는 접전이 펼쳐졌다.

우상귀 전투에서 미세하게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변상일은 중앙의 흑돌을 차단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진서는 절묘한 수순으로 타가에 성공하며 확실한 우세를 보였다.

결국 승부를 뒤집을 수 없게 되자 변상일은 돌을 던졌다.

신진서는 이날 승리로 변상일을 상대로 최근 15연승을 거두는 등 통산 37승 7패로 크게 앞섰다.



한국은 LG배에서 통산 13회 우승을 차지해 중국(12회)을 따돌리고 최다 우승국이 됐다.

일본이 2번, 대만은 1차례 LG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신진서는 대국 뒤 "정말 치열하게 땀 뺀 대국이 끝나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정도를 최선을 다했다. 요즘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다른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카
2관	시민덕희
3관	위시
4관	시민덕희
5관	영카
6관	영카,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9관	외계+인 2부
7관 씨네마	서울의 봄, 길위에 김대중
8관 씨네마	노랑: 죽음의 바다, 길위에 김대중, 아틀 새로운 시작,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